■ '대운하 보고서' 변조 의혹 일파만파

대선 구도 지각변동 일으키나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 재검토 보고서의 왜곡·변조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 측이 이번 대운하 파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반도 대운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선관위가 대운하 보고서 유출 과정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나섬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지난 18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유포된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37쪽 분량)는 정부의 보고서(9쪽 분량)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와 범여권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측에 총 공세를 펼쳤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의 이명박 죽이기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대운하가 타당성이 없다고 공격한 자료가 위조로 드러난 만큼 보고서를 위조한 사람들과 이를 활용한 정치세력을 국민 앞에 고발한다"고 주장,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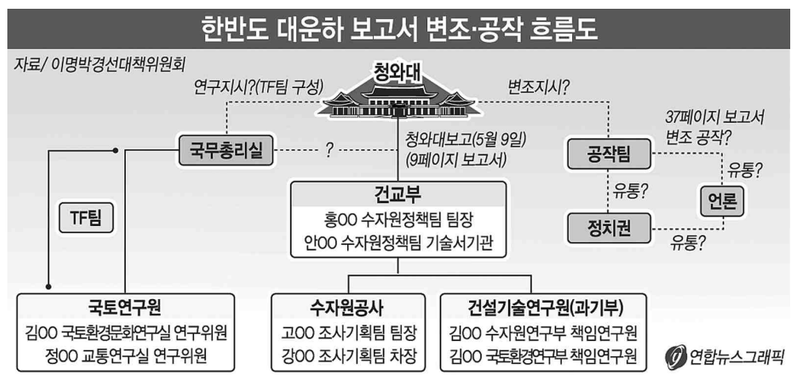
또한, 이재오 최고위원 등 이 전 시장 측은 이번 한반도 대운하 파문은 청와대와 특정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측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다들 매달려 여권의 단일화될 후보에 맞설 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검증 활동이 일절 중단되고 있다"며 이 전 시장측의 공세를 '본질 흐리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전 시장 측이 청와대 배후설을 강하게 제기한 것과 관련,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한 정부 보고서를 모두 국회에 제출하라고 건교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느 당과의 유불리를 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객관적으로 조사해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다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자원 공사 등이 연구한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연구보고서 등을 비롯한 모든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운하 보고서 작성 배경과 유출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운하 죽이기… 국조해야" 朴 "본질 흐리지 말라"

盧 "모든 보고서 국회 제출"… 선관위선 유출과정 조사

■ 靑, 선관위에 발언 '심의' 자청 왜 했나

盧대통령 발언권 수호 고육책

'합법적 투쟁' 선택…공 떠넘기기 분석도

당분간 정치적 논란될 발언 자제 불가피

청와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거듭된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종의 '합법적 투쟁'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론 존중, 내용적으론 강한 불만=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수석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발표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존중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냉소 섞인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불만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선거 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 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는 잇단 선관위의 결정으로 오히려 국정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듯하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선관위 결정 결과를 전해듣고 적잖이 당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관위 논의 대상에 오른 원광대 강연이나 6·10 민주항쟁 연설, 한겨레 인터뷰의 경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로 상징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발언과는 달리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상적인 정책·정치연설, 인터뷰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이번 판단 범위에 한겨레 인터뷰(6월13일) 내용까지 넣은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대통령 발언 사전심의 자청, 선관위로 '공' 넘겨=그렇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선관위를 상대로 직접 공세를 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다시 선관위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검열'받겠다고 자청한 것은 선관위에 일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나라당 '형평성' 불만 표출= 이와 함께 청와대가 선관위의 이번 판단에서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은 한나라당과의 '형평성' 문제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의 말은 문제삼지 않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정무팀 핵심 관계자)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李 전 시장 형 이상은씨 다스 증여세 탈루 의혹"

우리당 박영선 의원 제기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맏형인 이상은씨가 지난 98년 일본 후지기공으로부터 다스(구 대부기공)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는 이상은씨와 이 전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87년 일본 후지기공의 기술이전을 받아 공동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시장이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면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후지기공의 결산자료를 인용, "후지기공은 98년 11.4%에 달하는 다스 지분을 액면가(1만원)로 3억4천만원에 이상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당시 다스와 비슷한 납품업체들의 주식가치가 3만원 이상으로 평가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지분양도가 이뤄진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7년 기술이전을 하면서 3억4천만원을 투자했던 후지기공이 11년 뒤 프리미엄을 전혀 붙이지 않은 채 원금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을 과연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본 후지기공의 결산보고서를 제시하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부기공(현 다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산악회' 검찰,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 21 산악회'가 모임의 취지를 넘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18일 밤 본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 후보 측의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이 조직의 회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와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본부 사무실과 회장 등 간부들의 거처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李 "경제통일 선행… 비핵·개방 3000구상"

朴 "미국과 신뢰 회복… 3단계 통일 추진"

한 대선주자 통일외교 토론회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5명은 19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대북정책, 북핵해법, 후보의 이념·정체성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햇볕정책은 의도와 달리 결과가 빗나갔다"면서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 이제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또 "김정일에게 핵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겠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핵무기를 포기하라. 개방의 길로 나오라. 그렇게 되면 모든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경제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우선 미국과의 신뢰관계부터 회복하겠다"면서 "미국과 신안보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21세기에 걸맞은 가치동맹, 경제동맹, 포괄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통일정책과 관련,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는 평화정착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경제 통일 ▲자유·인권·복지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통일의 3단계 통일론을 주창했다.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제 반공 정당의 굴레에서 통일비전을 보여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정례화, 총리급 회담 개최를 공약했다.

홍준표 의원은 "좌·우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한반도 특사 활용 ▲서울과 평양에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고진화 의원은 "한민족 대연합 통일 구상으로 민족의 염원, 겨레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겠다"면서 "정상회담 정례화,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군비 통제를 통한 '3+1 신뢰구축 조치'로 통일의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적합 시험성적서
유럽안전인증(CE) 획득
삼성화재 생산물배상 책임보험(2억원) 가입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지리산한약방(국내산한약재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광주천 아세아극장 광주은행 북부지점 ←돌고개 광주역→ 양동시장 지리산한약방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더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원,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可…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거나 사고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함)돼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행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제1회 시험 국가공인자격 평균 60점이상 합격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상담문의/(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